

월요논단



김 동 운

제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0월 31일 새벽, 비보가 들려왔다. 오키나와 슈리성(首里城)의 화재로 궁궐 대부분이 잿더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안타까운 소식이었다. 류큐대학에 머물렀을 때를 포함하여 거의 열 번 정도 드나들었던 곳이었기에 더욱 가슴 아팠다.

1879년 류큐왕국이 일본의 오키나와현이 되면서 슈리성은 제 기능을 잃고 말았다. 500년 전통의 왕국이 무너졌으니 왕실은 비워져야 했다. 요나하라 케이(与那原恵)의 ‘슈리성으로 가는 언덕길’(임경택 옮김)에 따르면, 불과 이를 사이에 왕실의 물

슈리성의 비보와 평화세상의 염원

건들이 옮겨졌다. 밤하늘 아래 햇불이 밝혀졌고, 왕과 왕족들은 신하들과 함께 슈리성을 나와 언덕길을 내려갔다. 그들이 옮겨간 나카구스쿠 우둔(中城御殿)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오열하였다.

왕이 떠난 슈리성에는 일본 육군 400명이 나팔을 울리면서 입성했다. 이후 주민 출입은 엄격히 통제된 가운데 17년 동안은 반란을 진압할 목적의 군대가 주둔했다. 1921년에는 일본의 황태자(나중의 쇼와 천황(일왕))가 유럽으로 가던 도중 오키나와를 방문하여 인력거를 타고 슈리성을 방문했다. 사진집 ‘옛 오키나와(むかし沖縄)’에선 1925년에 제2황태자(지치부노미야) 일행이 슈리성에서 열린 환영회에 다녀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철거 위기에 직면하기도 했던 슈리성은 태평양전쟁이 벌어지면서 일본군의 거점이 되고 말았다. 지하

에 일본 육군 제32군의 사령부가 있었기에 미군의 주요 표적이 되었다. 1945년 3월말부터 약 3개월 동안의 오키나와전쟁 중에서 가장 치열한 전투가 5월 말에 이곳에서 벌어졌다. 궁궐은 물론이요 성곽도 완전히 파괴되었다.(이번 화재 전의 슈리성 모습은 1992년 복원된 것이었다.)

류큐 왕이 업무를 보던 정전(正殿) 앞에서 150명 정도의 일본군들이 가라데 훈련을 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된다. 나는 이 사진이야말로 제국 일본과 식민지 오키나와의 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일본에게 오키나와의 역사와 전통은 추호도 안중에 없었다. 그들에게 주민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패전이 질어지자 오키나와를 ‘버린 돌(捨石)’로 삼았다.

오키나와전쟁에서 우치난주(오키나와 사람)는 10만 명 이상 죽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군대는 결코 주

민을 지켜주지 못한다”면서 오늘날도 반기지(反基地) 투쟁을 줄기차게 펼치고 있다.

역사적으로 오키나와의 14~16세기는 ‘대교역(大交易)시대’라는 황금시대였다. 류큐왕국은 이 시기에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 활발한 해상 무역을 하면서 풍요를 누렸다. 당시의 류큐는 ‘예의를 지키는 나라(守禮之邦)’라는 기치를 내걸고 평화주의 외교를 추구하고 있었다. 그런 류큐가 참혹한 전쟁터에 이어, 미군 기지에다 자위대 기지까지 난립한 ‘기지의 섬’이 되고 만 것은 순전히 제국의 탐욕 때문이었다.

슈리성의 궁궐은 불탔지만, 입구의 슈레이문(守禮門)에는 ‘슈례지방’이라는 편액이 여전히 걸려 있을 것이다. 이번 화재로 실의에 빠졌을 우치난주들에게 위로를 전하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그들의 염원이 당당히 복구되는 세상을 간절히 바란다.

뉴스-in

정무부지사 임명 속 떨어지는 도-의회 협치

“인사청문회 왜 요청했나”

○…원희룡 도지사가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사실상 ‘부적격’ 결론을 낸 김성인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후폭풍.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 속 도정이 도의회의와의 협치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

강철남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지난 1일 성명에서 “아차피 임명할 것이면 인사청문을 왜 요청했나” “무조건 도지사의 뜻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이 원 지사가 말하는 협치인가”라며 쓴소리. 오온지기자

수능 전·후 청소년 선도활동

○…제주시가 11월 한달 동안 수능시험 전후 우려되는 청소년의 일탈과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유해환경 제거활동을 전개하기로 해 눈길.

시는 제주시청소년지도위원 등과 함께 민·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주 2회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 대하로, 뉴에마루 거리 등 음식점 및 청소년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계도활동을 펼칠 계획.

시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등 업소의 기본적인 준수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 고대로그기자

범농협 사회공헌봉사단 출범

○…제주농협본부, 농협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등 농협의 계열사들이 ‘범제주농협 사회공헌봉사단’을 출범.

이들은 지난 1일 제주농협에서 발대식을 갖고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농가, 고령농가, 저소득층 가구 등의 일손돕기 지원은 물론 주거환경 개선 등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

변대근 제주농협 본부장은 “우선 간부를 중심으로 봉사단이 출범했고 향후 직원, 관련기관, 농업인단체, 고객, 도민을 대상으로 봉사자를 확대해 다각적인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강조. 백규탁기자

사설

‘부적격’ 의견 무시 정무부지사 임명 강행

제주도가 도의회의 부적격 의견에도 불구하고 민선7기 두 번째 정무부지사 임명을 강행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책 전문성 등 능력 검증과 인사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인사청문회가 요식행위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달 30일 김성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냈습니다. 행정 경험 및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추진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문특위 결과보고서는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인사는 인사권자인 원희룡 지사에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청문특위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데는 나름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숙고하려는 정무적 감각과 협치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제주도가 서둘러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큼니다. 청문결과보고서 내용은 불분하고 절차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한 인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협치와 소통은 외면한 채 독선과 불통 도정 이미지만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는 제주도정이나 도민사회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인사청문 제도는 제주도로서는 의미가 큼니다.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2006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후 전국 지자체는 집행부와 의회간 협약 등을 체결하고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인사청문회를 최초 도입하면서 기대와 관심을 모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의 절차적 단계로만 전락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지 않도록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반드시 이뤄져야

육지와 거래해야 하는 섬지역은 물류비 부담이 만만찮습니다. 농산물 해상물류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특수한 여건 때문에 현행법으로도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섬지역에서 생산한 농수산물물을 육지로 운반할 경우 운임 및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제주지역 농어민들의 숙원인데도 번번이 무산됐던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포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성곤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홍 경제부총리는 “아직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도서지역 해상물류비를 일정부분 보조해주는 사업을 포함해서 예산심의 때 협

의하겠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에 부정적이었던 기재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받아들여져 기대됩니다.

사실 제주 농산물의 해상물류비 부담이 적잖습니다. 연간 생산되는 농산물 149만t 가운데 88만t(59%)이 다른 시·도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상운송비로 연간 738억원이 소요될 정도입니다. 특히 제주지역은 항공물류비도 특하면 오르기 일쑤여서 농가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도 지난달 제주에서 열린 국정감사 때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을 적극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도서지역 농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 겁니다. 농산물 해상운송비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런만큼 기재부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됩니다.

열린마당

나만의 것이 아닌 나의 생명



임 은 선

제주소방서 오라119센터

또 한명의 연예인이 자살했다. 화려함 뒷면에 막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드러낼 수 없는 아픔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안타까운 마음에 진심을 더해 고인이 명복을 빈다.

유명인의 자살이 있을 때 마다 ‘베르테르 효과’가 있다고 한다. 2018년 통계청의 사망원인 발표와 서울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 2005~2013년에 연예인의 잇단 자살 후 일반인의 자살률이 증가했으며 교수는 “나쁜 일이라도 동질감을 느끼고 싶은 대상이 하면 받아들이기 쉬운 심리가 있다. 유명인이 자살하면 일반인이 자살에 대해 갖고 있는 심리적인 문턱도 낮아진다”고 지적했다. 죽음과

자살을 일차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구급대원으로서 걱정이 된다.

지난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에 보건복지부는 대한민국은 OECD 국가중 자살률 1위라고 발표했다. 충격적인 것은 자살이 10대, 30대 사망의 원인 중 1위, 40~50대에서는 2위라는 것이다. 경제적 문제, 가정문제, 성격과 진로, 인간관계 등 자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론 개인주의, 경제적 문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현상 등이 있다.

우리사회의 자살 문제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방임을 강조하며 개인적 문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사회적,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막다른길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결국 그들에게 필요한건 내생명이 나만의 것이 아니며 자살은 모두에게 슬픈 일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고없는 자살은 없다고 한다.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끊임없는 관심, 공감과 위로를 통해 더 좋은 해결방법을 알려줘야겠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 고

황운성 어머니 **제주고씨 현아** (향년 91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3일 15시 58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1월 4일(월)
▶ 발인일시: 2019년 11월 5일(화) (정례미사) 오전 10시 신제주성당
▶ 발인장소: 신제주성당
▶ 장 자: 황사평 선영

아 들 황운성

딸 황미자 사 위 강영준

애자(연다) 김동남(연사노)

명자(아드리야) 고동오

※ 연락처 : 황운성 010-9838-4207
황미자 010-2622-2706
황애자 010-2685-1774
황명자 010-9840-2898
강영준 010-3088-2706
김동남 010-4446-4190
고동오 010-2795-7289

부 고

안창수(前 중문신협 이사장)·**창완** 어머니 **원주변씨 춘자**(향년 92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2일 04시 30분경에 노환으로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1월 4일(월)
▶ 발인일시: 2019년 11월 5일(화) 오전 7시
▶ 발인장소: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3분향실
▶ 장 자: 서귀포 추모공원

아 들 안창수 며느리 김충곤

창완 강순복

딸 안인선 사 위 고성하

여진 이후상(微)

희진 문양웅

금순 김석중

손 자 안병욱 손 녀 안소연

유선

※ 연락처 : 안창수 010-3698-2198
안창완 010-9458-4505
김석중 010-3698-3411

부 고

김광섭(외도동주민센터 근무) 어머니 **남양홍씨 금순**(향년 84세)께서 서기 2019년 11월 2일 14시 5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1월 5일(화)
▶ 발인일시: 2019년 11월 6일(수) 오전 7시
▶ 발인장소: 하귀농협장례식장 3층 301호 분향실
▶ 장 자: 한림읍 상대리 가족묘지

아 들 김광섭 며느리 윤말순

우섭 조은숙

경섭 유은희

동섭 조주영

※ 연락처 : 김광섭 010-3517-8008
김우섭 010-6663-6135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진주강씨 정아** (향년 98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4일
아 들 **나용우** 며느리 **박매향**
현우 **진순녀**
석우 **이산록**
영우 **박영배**
나선자 사 위 **정순영**
금자 **김동명**
순자 **오윤진**
양운학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해남윤씨 승주** (순숙·행복한피아니스트 원장·향년 56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4일
남 편 **조영훈**
아 들 **조무결**(행형)
딸 **조수안**(연주)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연주현공 만옥** (향년 8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4일
부인 **고매월** 며느리 **오영한**
아들 **현길호** **양봉심**
현길준 **정미선**
정호준
정호준
딸 **현영희** 사위 **양상길**
영미 **신봉주**
영선 **최영태**
영란 **김용인**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할머니 **김해김씨 인봉** (향년 104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4일
며느리 **김영이**
딸 **양춘호** 사 위 **부규훈**
장 손 **양재표**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경주김씨 효순** (향년 95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우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1월 4일
아 들 **김용남** 며느리 **양윤실**
시남 **김향선**
딸 **김신자**

제주지방방법원 관결공시

- 제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고단1155
도로법위반
- 피 고 인 대신전기 주식회사

위 피고인은 도로법위반죄로 기소되었으나 죄가 되지아니함을 이유로 무죄의 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음을 공시함

2019. 11. 1

판사 **박준석**